

‘나무와 숲처럼 상생’이 화쟁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화쟁사상·사회갈등
주제 워크숍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쟁사상과 사회갈등 해소’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화쟁위원회 활동이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부처님 자비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종단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쏟아부으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가 ‘화쟁-원융무애의 실천적 원리’를,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사회갈등 해소, 화쟁이 대안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화쟁의 시작

“화쟁은 하나지만 하나 아닌 도리”

몇 사람의 장님이 코끼리를 묘사했다. 코를 만진 어떤 이는 “코끼리는 길다”고 말했다.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벽과 같다”고 표현했다. 다리를 만진 이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장님들의 언급에 대해 원효 스님은 “모두 옳다(皆是)”라고 말했다. 장님들의 묘사가 부분적이긴 했지만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언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원효 스님은 “모두 틀렸다(皆非)”고 말했다. 어느 누구도 코끼리의 전모를 묘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조성택 교수는 “원효 스님은 ‘장님과 코끼리’라는 잘 알려진 비유를 통해 일상적 실천의 차원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화쟁론을 제시했다”며 “원효는 자신이 살던 당시의 불교적 상황에 대해, 더 나아가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조성택 교수는 “원효 스님이 이 비유를 사

용할 때 한가지 핵심적 사상은 자신 또한 ‘장님’을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했다.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도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면 나도 틀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화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만약 코끼리가 아닌 우리가 듣고 보도 못한 어떤 동물을 비유로 들었을 때 우리는 감히 ‘나는 장님이 아니며 그 동물의 전모를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효 스님은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를 통해 중생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지향할 것인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열매와 씨가 하나가 아니니 그 모양이 같지 않기에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르지도 않으니 씨를 떠나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씨와 열매는 단절된 것도 아니니 열매가 이어져서 씨가 생기기 때문이

요, 그러나 늘 같음도 아니니 열매가 생기면 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씨는 열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열매일 때는 씨가 없기 때문이요, 열매는 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씨일 때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들어가기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생하는 것이 아니요, 늘 같지도 끊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아니다. 멸하지 않으므로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생하지 않으므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두 변을 멀리 떠났으므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 가운데 해당하지 않으므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금강삼매경문>

이도흠 교수는 “화쟁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 불일불이(不一不二)는 우열이 아니라 차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투쟁과 모순이 아니라 자신을 소멸시켜 타자를 이루게 하는 상생의 시유체계”라고 강조했다. 씨는 스스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지만 열매와의 ‘차이’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는 것.

이도흠 교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물고기가 나고 죽어 미생물로 변하는 영겁의 순환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는 서로 상극상입한다는 생각으로 아공(空)을 깨달아 나부터 권력과 자원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그와 나무와 숲처럼 불일불이의 상생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국사가 시자 세 번부른 뜻은?

하안거 해제 맞아 조계종 법전 스님
태고종 혜초 스님 해제 법어

8월 24일 하안거 해제일을 맞아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해제법어를 내렸다.

법전 스님은 8월 24일 법어에서 남양혜종 국사와 시자인 응진담원 스님의 일화를 예로 들며 “한 번만 부르고 한 번만 대꾸해도 좋을 것인데 (남양혜종 국사와 시자인 응진담원 스님이) 세 번 부르고 세 번 대꾸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라는 화두를 내렸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객과 주인으로 살갑게 대하면 어느 경계인들 자유롭지 않겠느냐”며 “자고 깨고 먹고 굶고 일하고 노는 일이 불사 아닌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제 석달동안 불사를 했는지 열반락을 누렸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만행(萬行)을 하라”며 “가다가 발뚎침치가 오랜만에 깨끗해진 농부를 만나거든 그가 바로 석가요, 미륵임을 알고 예경하라”고 법문했다.

한편, 조계종은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경인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하안거에는 전국 104개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61곳, 비구니선원 38곳)에서 2257명(비구 1182명, 비구니 864명, 총림 204명)의 대중이 옹맹 정진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개최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건 등 통과 관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은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제184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한다. 관련한 의안 접수는 8월 30일 종책집의 9월 1일까지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접수 받는다.

이번 종회는 제14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종회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난 183회에서 이월된 안건을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제33대 집행부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승려노후복지 관련법 제정과 수익사업 등을 위한 불교법인법 제정안, 해외특별교구 설립 관련법은 11월 구성될 제15대 종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행사적인 회기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임시중앙종회 분회의에

서 부결된 동국대 이사 후보추천건도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회의 일정을 정해놓고 있지 않아 동국대 이사 후보추천건은 본회의 상정조차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제183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영배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정호·법해 스님과 정법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종호·선각 스님 등이 분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영배 스님 후임은 총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법 스님 후임은 재산 출연 사찰의 예우 문제도 부결시켰다.

한편, 제15대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월 28일 직선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1월 중 구성된다.

조동섭 기자

MBC는 PD수첩

방영하라

국도부가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MBC(사장 김재철)가 8월 17일 임원회의서 방송 보류한데 대해,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19일 ‘MBC는 을 방영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4대강 사업이 (정부 측 주장대로) 그토록 정당하다면 대통령이 거짓말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서라도 MBC는 빨리 제대로 방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방영될 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에는 △수심을 6m로 유지하려는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동섭 기자

수요일엔 생명평화 대화마당

4대강 생명살림기도 2차 정진 입재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8월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4대강 생명살림기도 2차정진 입재식을 봉행했다. 불교연대는 입재식 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0여 4종단 대표와 신도등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공동기도회로 확대·진행했다.

10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2차 정진에는 매주 수요일 ‘생명평화대화마당’이 개최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참회정진 후 대한문 앞에서 4대강사

업저지 천주교연대, 기독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등이 참여하는 4대강 공동기도회로 확대·진행한다. 노덕현·이상연 기자

각명·성호 스님

총무원장 직무정지신청

호계원, 각명 스님 공권정지

종무행정 거부로 징계 회부된 각명 스님(보은 봉곡암)과 지난해 10월 총무원장 선거 당시 괴문서 유포 용의자로 지목된 성호 스님(진안 금당사)이 8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 “각명·성호 스님 모두 종단에 징계회부된 스님으로 가처분신청 등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각도로 대처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조계종 조심호계원(원장 정법)은 종무행정 거부 이유로 징계 회부된 각명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계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정진에 다시 돌입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8월 20일 조계사에서 주관 스님(4대강개발사업저지특별대책위원회), 퇴후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을 비롯한 불교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생명살림 108참회정진’ 2차 입재식을 개최했다. 입재식에서 지관 스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밖에 없다. 많은 동참바란다”고 말했다. 퇴후 스님은 “MB정부는 언론까지 장악하면서 모두를 절망에 빠뜨렸다”면서 “2차 정진을 시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고, 모든 생명이 평화를 전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국 불교 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 8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삼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 법. 사삼구재·천도재 제사 준비 등 전과정 지도 (6개월 과정)

■ **작법·무용과정**: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6개월 과정) 바라춤 - 요점바라, 관음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나바라

지도 교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 수록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	---------

- **개강일시**: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일정 설명)
- **모집인원**: 0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범패·의식과정: 화요일 오후 3시 ~ 오후 5시 / 작법·무용과정: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 **수강료**: 1학기(6개월 과정) - 과정당 30만원
- **접수기간**: 2010년 8월 ~ 2010년 9월 6일까지.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교는 초중과 불교예술대학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 한국불교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 수록재 보존회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032)529-6708 FAX: 032)529-6709

홈페이지: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